

지휘자 장한나·빈 심포니가 빛어내는 베토벤 선율

광주예술의전당 11일 재개관 기념 특별공연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 공연'...브루스리우 협연

지난해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브람스와 베토벤 음악으로 한국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흔든 빈 심포니가 지휘자 장한나·피아니스트 브루스리우(Bruce Liu)와 함께 베토벤 프로그램의 정수를 보여준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11일 오후 5시 대극장 무대에서 재개관 기념 특별 음악회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광주예술의전당과 더불어유씨엔 코리아주가 공동주최한다.



지휘자 장한나



'빈 심포니'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피아니스트 브루스리우

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6년 만에 우승을 거머쥔 브루스리우의 출연 또한 기대를 모은다.

잘 다듬어진 테크닉과 깊이 있는 곡 해석 능력, 그리고 이를 표현해내는 정교한 연주로 평단과 청중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는 현재 세계 유수의 극장과 오케스트라에서 리브콜을 받으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영감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참신한 연주를 들려주는 브루스리우와 지휘자 장한나, 그리고 빈 심포니가 함께 만나 빛어낼 음악은 클래식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며 "정량한 여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곡이 선사하는 감미로운 선율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 심포니' 공연 입장권은 R 28만원, S 23만원, A 17만원, B 11만원, C 4만원으로 광주시민은 20%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연 상세 정보와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1588-7800)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1900년 '빈 음악협회 관현악단'으로부터 시작된 빈 심포니는 현재 빈의 문화대사이자 빈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다.

빈 특유의 독특한 사운드를 가장 이상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해내

는 오케스트라로 정평이 나왔다. 이번 내한공연에 함께하는 지휘자 장한나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 트롬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2022-2023시즌 독일 함부르크 심포

니 수석 객원 지휘자로 새롭게 임명됐다.

그는 11세 때 파리에서 열린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음악계의 주목

을 받았으며, 2007년 정식 지휘자로 데뷔한 이후 지휘에만 전념해왔다.

이날 무대에서는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시작한 계기였던 베토벤 프로그래를 통해 빈 심포니와의 완벽한 호흡을 선사한다.

장애를 딛고 일어난 한 예술가의 자기 확신과 거칠 것 없는 외침을 이야기하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과 에너지 넘치는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가수 아닌 화가로'...김창완 특별 초대전

여수아트디오션 갤러리 '붓으로 보다'展

과감한 붓질 속에 순수한 진심이 담긴 김창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여수아트디오션 갤러리는 6일 "150여점의 그림이 전시되는 김창완 초대전은 '붓으로 보다'라는 테마로 오는 7월27일 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1977년 산울림 밴드로 데뷔해 1집 앨범 '아니 벌써'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김창완은 가수에서 배우, 라디오 DJ, 작사가, 작곡가, 소설가, 시인 그리고 화가로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김창완이 그림을 그린 지는 오래됐다. 산울림 첫 앨범 커버가 그의 왼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시작이었다.

산울림의 데뷔 앨범 커버부터 공연 포스터까지 크레파스로 직접 그린 그림들이 노래와 만나면서 하나의 작품이 됐다.

부스스한 머리에 해맑고 순수한 미소를 가진 가수 김창완이 과격적인 사운드와 꾸밈없는 노랫말 그리고 말하는 듯한



김창완작가

개성적인 창법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혔다면 화가 김창완은 과감한 붓질 속 순수한 진심을 담았다.

김창완 작가는 "음악으로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보다 더 순수한 세계에서 만나고 싶어 전시회를 열었다"며 "관객들이 와서 꽃구경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경 아트디오션 갤러리 관장은 "이번 아트디오션 갤러리 초대전이 김창완 작가의 예술 역사에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며 "그가 지내온 세월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림들과 그가 부른 노랫말처럼 붓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시립발레단 '돈키호테' 공연모습

시립발레단 '돈키호테',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

24-25일 서울예술의전당무대

광주시립발레단의 '돈키호테'가 오는 24-25일 2023 제13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 무대에 오른다.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원작은 몽상가인 돈키호테와 그의 하인 산초 판자, 늙고 둔한 말 로시

난데의 모험을 다뤘으나 광주시립발레단의 '돈키호테'는 이발사 '바질'과 여관집 딸 '키트리'가 주인공인 사랑 이야기다.

아울러 독일 슈투트가르트 무용단 제작감독이자 지도위원인 크리스토프 노보그로츠키가 재안무를 맡아 현대적 재해석이 세밀하게 더해졌다.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은

"기존에 선보였던 '돈키호테'와는 다른 볼거리와 해석으로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특수무대장치(LED)를 활용한 무대미술과 무용수들의 화려한 기교와 개성 넘치는 연기를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공연은 24일 오후 2시와 7시, 25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DANIEDEL
 THE 140 DAY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광주매일신문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무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노은준

무안농업협동조합